

肝癌의 예방과 치료

간암은 국내에서 위암 다음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보다 6배 정도의 높은 발병율을 갖고 있다. 또한 거의 50대의 연령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간암을 50대 의병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간암의 원인이란 생각되어지는 원인은 많지만 그 대표적인 몇가지를 든다면,

첫째로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증거로써 B형간염바이러스 DNA가 간암세포에서 발견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급성간염에서 만성간염으로 다시간

경변증을 거쳐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는 곰팡이독 특히 아플라톡신(aflatoxin)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

형간염바이러스와 곰팡이 독이 복합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는 식물성 알카로이드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고 여겨진

몸이 노곤하고 소화기 안되는 등 대부분 간경변증세와 동일

아플라톡신·식물성알카로이드 및 방부제 등이 원인물질

바이러스 B형肝炎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

다. 이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경우 곰팡이가 많이 낀 땅콩을 식량이 부족하므로 어려서 부터 많이 먹는데 이들에게서 높은 빈도의 간암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또는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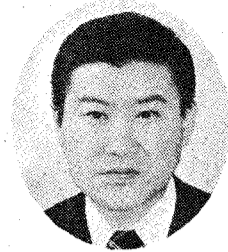
다. 이것은 심각한 간독이 된다. 한약제로 사용되는 부자나 그외의 식물성약제들에서 알카로이드가 발견되어지고 있다.

넷째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같은 몇몇 첨가물에 의해 야기된다. 방부제의 경우 주성분이 질소(Nitrate)인데 이것이 반응을 일으켜 발암물질인 아민으로까지 진전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버터에 들어있는 황색소(axocompound)도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번째는 유전적 소질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가계를 조사해 볼 때 통계적으로 특정가계에 많은 간암환자가 있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아울러 남자가 여자보다 약 6배나 높은 것을 볼 때 남성호르몬이 관계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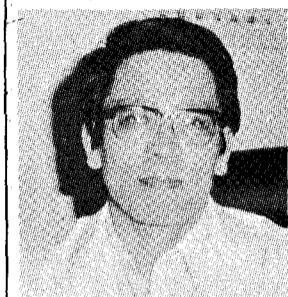
이러한 간암의 일반적 증상을 들자면 쉽게 간경변증세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증세로 몸이 노곤하다. 소화가 안되고 헛배가 부르고 방구도 나오고 식욕이 없다. 코피가 자주 터진다. 큰뻐마디가 아프다. 손이 뻘뻘하다. 멍이 잘 든다.



金 丁 龍

〈서울의대〉
〈내과교수〉

된 경우 좌엽절제술로 간암을 치료할 수 있다. 우엽의 경우도 비교적 우하엽에 있으면 수술 성공율이 높다. 또한 좌, 우에 전부암이 전이되어 있으면 간이식수술이나 함양요법을 사용한다. 이 함양요법의 경우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르지만 생명연장의 효과가 있음이 확증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경우 간암의 진단이 떨어지면 생명이 6개월을 넘지 못하였지만 현재는 이러한 치료방법에 의해 5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방법에는 방목으로 B형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음식물섭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을 심각한 간독이 된다. 한약제로 사용되는 부자나 그외의 식물성약제들에서 알카로이드가 발견되어지고 있다. 넷째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같은 몇몇 첨가물에 의해 야기된다. 방부제의 경우 주성분이 질소(Nitrate)인데 이것이 반응을 일으켜 발암물질인 아민으로까지 진전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버터에 들어있는 황색소(axocompound)도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번째는 유전적 소질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가계를 조사해 볼 때 통계적으로 특정가계에 많은 간암환자가 있는 것을 볼 때

金 眞 浩

다. 메니스가 부러질 때 발을 따라 뒤늦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공중을 걷는 일만 실컷하고 시를 해진 『조라린(?)』 경연이 있느냐로서는 메니스공보다 훨씬 작

3층까지는 힘차게 뛰어 오르는다. 4층까지도 힘찬 발걸음으로

계단오르기를 하며...

『시작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회식에 참석할 일이 많아졌다. 시작했다는 걸 많이 모르겠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있었으나 곧 그것이 골골의 미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답하기에 뭐 별로 어렵지 않다. 속해서 고개를 드는 것은

관절염증상이 사라지는 환자

보다 즐거운 생활이길

는 한 가지 모색해 주시고 유독해 주시길 바란다. 유독해 주시길 바란다. 유독해 주시길 바란다.

성인병교실 무료강좌 강연내용 요지



孫 皓 永
〈가톨릭의대〉
〈내과교수〉

당뇨병은 먼 이집트시대부터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가 긴 만성소모성 질환이다. 이러한 당뇨병의 예방적인 면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85년 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의 당뇨병연구회의 의회에서 이제까지 분류했던 2가지 분류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여 3가지로 원인별 분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제1형 당뇨병(유아형)과 제2형 당뇨병(성인형)에다가 제3형 당뇨병(영양실조증당뇨)을 추가한 것이다. 이 제3형 당뇨병의 경우는 우리의 실정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의 원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주요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유전적소질이다. 이것은 양친이 다 당뇨병인 자녀의 경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로 나타나고 한쪽만이 당뇨병을 가진 자녀의 경우는 10~25% 정도 나타나실 제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두번째 원인은 바이러스의 감염이다. 즉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여 인슐린을 공급하는 췌장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다 셋째는 자가면역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이다. 즉 면역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자신의 췌장을 파괴하여 인슐린생산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1형 당뇨병은 절대적인 인슐린부족증으로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자가면역기능低下 등 인슐린부족으로 발병 적절 한 운동 및 식사療法이 최선의 치료대책

증세는 의식이 소실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한다. 처치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므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으며 인슐린을 꼭맞고 몸에 피로운 일이나 염증이 생기면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